

News & News

모 전문지 보도 엄중 책임 묻기로 치협 회장단 회의 열고 현안 점검

치협이 회장단 회의를 열고 감사일정 및 준비사항 점검, 직원 연봉제 평가 등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11월 2일 치협은 회장단 및 각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열고 감사일정 및 준비 과정 등 회무 진행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감사를 위해 회무 보고서, 협회장 공약사항, 총회 수입사항 등 감사 자료 준비 및 최종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직원 연봉제 평가 방법과 관련 평가 양식과 항목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추진 과정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치정회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안성모 협회장이 해당 전문지 기자를 직접 만나거나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는데도 관련 기사가 게재된 것과 관련, 해당 신문에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키로 했다.

또 치위협에도 정식 공문을 보내 해당 전문지가 게재한 '의료법 개정 운운'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리는 한편 치위협이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 확인을 당사자가 아닌 해당 기자에게 했을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집단시위에 나설 것을 경고하는 등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나아가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News & News

보수교육 내실화 만전 130여개 연제·연자 등 논의

치협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안창영)는 11월 8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치협 학술위원회에 신청한 130여개의 보수교육 연제와 연자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력이 미비한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요청키로 했으며, 차후 보수교육과 관련된 주최측의 협조가

이드라인을 제작키로 했다.

안창영 부회장은 "보수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되도록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자들이 직접 학회 등에 나가 오전과 오후에 출석을 체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ews & News

'치과계 블루오션을 찾아서' 치의학회 종합학술대회 대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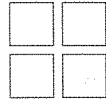
치의학회(회장 안창영)는 11월 7일 치협 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2006년에 열리는 종합학술대회의 대주제를 이같이 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분과학회 인준과 관련 일부 학회의 경우 제3자가 보다라도 지나치게 난립돼 있어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일부 학회의 경우 국제적인 위상에 맞게 분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분과학회 인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키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보다 심도 깊게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연송치의학상에 대한 심사 기준, 협회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재논의키로 했다.

안창영 회장은 "임상뿐만 아니라 기초치의학, 치과의료 산업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대회 주제에 '블루오션'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며 "학술대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대의원총회 4월 22일 연다 치협 정기이사회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 구성

치협 제55차 정기대의원 총회 일정이 2006년 4월 22일로 잡혔다. 치협은 11월 15일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총회 일정 및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해 이수구·김동기·김재영 부회장, 안창영 학술부회장, 김성욱·노홍섭 지부담당부회장, 김성욱 총무이사, 송요선 재무이사, 이원균 공보이사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선정위는 26일까지 추천된 '올해의 치과인상' 후보 가운데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난해 제정된 '올해의 치과인상'은 치과 의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 관계자 또는 치과계 단체들 가운데 사회 여러 분야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해오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 등을 선정, 수상함으로써 치과계의 위상과 대국민 이미지를 드높이고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정된 명예로운 상이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인 'SIDEX 2006' 협회 후원명칭 사용 요청과 관련, 후원기로 했으며, 2006년 신년교례회 일정을 2006년 1월 6일로 결정했다.

또 치과 의사전문직제도 시행위원회 위원으로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 송우식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으며,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백광우 교수는 협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역시 새롭게 위촉됐다.

이밖에 기타 보고사항으로 대전지부에서 상정한 원광대 치과병원 대전분원 설립 움직임에 대한 반대건에 대해 논의했다.

치의학회 영문학회지 SCI 등재 "분과학회 지원사격 절실"

"SCI 등재를 목표로 하는 치의학회 영문학회지 발간을 위해 분과학회의 심시일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창영 치의학회장이 치의학회지를 발간하고 이를 SCI 등재 학술지로 만들기 위해 분과학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안 회장은 11월 23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치의학회 분과학회협의회 회에서 "현재로서는 분과학회 단독으로 SCI 등재를 위한 학술지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대표성을 갖는 치의학회에서는 이를 수 있다. 치의학회 상징이 될 수 있는 SCI 학술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치협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분과학회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상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분과학회에서는 이사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정하고 차기 회의가 열리는 12월 23일 지원금에 대해 논의

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지 개선방안의 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협회지를 외국의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상징적인 것임으로 폐간하는 것은 안된다 ▲협회지가 학술지로 되돌아가도록 편집위원회에서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학술지로 변모하기에는 ▲좋은 논문 투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회원 대다수인 개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에 개최되는 치의학회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 안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치의학회에서 학술대회 잉여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